

드디어 팬들과 만남... 호랑이 가슴 '두근두근'



**KIA 오늘부터 부산서 롯데와 3연전... 첫 관중 입장 경기
브룩스·임기영·가봉 순 선발... 김선빈, 복귀 최종 점검
롯데에 올 6승 1패... 마운드 너넨한 휴식에 자신감 상승**

마운드 로테이션을 재조정된 '호랑이 군단'이 김선빈까지 더해 시작 원정길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31일부터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시작하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KIA는 마운드에 변화를 준다.

지난 28·29일 각각 노계임과 우천취소라는 마운드 변수가 발생했다.

특히 노계임이 선원했던 28일 가봉이 2이닝만 소화하면서 윌리엄스 감독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윌리엄스 감독은 상황을 보고 8월 1일 선발로 가봉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상로테이션에서 하루 앞당긴 날짜다. 하지만 가봉은 원래 준비했던 대로 8월 2일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양현종이 비로 하루 밀어 30일 KT 위즈 경기에 나선데 이어 브룩스가 31일 시작 첫 경기에 출격한다.

8월 첫 경기는 임기영이 책임진다. 이어 가봉이 2일 시작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이어 이민우가 다음 주 화요일 경기(4일)에 나오는 등 가봉과 이민우가 순서를 바꾸게 됐다.

선발진 모두 넉넉하게 휴식을 취하고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여기에 반가운 복귀도 예정됐다.

사직으로 가는 선수단 버스에 내야수 김선빈도 탑승한다.

김선빈은 지난 7월 6일 오른쪽 발목 타박상과 왼쪽 대퇴이두근 염좌로 두 번째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6일 선수단에 합류해 본격적인 복귀 준비에 나선 김선빈은 31일 시작에서 최종 테스트를 받

는다.

윌리엄스 감독은 30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김선빈의 컨디션이나 몸상태는 좋다. 케이지에서 배팅했고 러닝 훈련도 했다. 최종 점검으로 베이스 러닝을 해야 한다. 오늘 베이스 러닝을 할 계획이었지만 스케줄을 조정해서 내일 베이스 러닝을 하게 됐다"며 "몸 상태를 확인해보야겠지만 러닝할 때와 베이스 밟으면서 뛰는 경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베이스 러닝 상태를 보고 다음 날 (등로 여부) 최종 결정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김선빈은 선수단과 사직으로 간다.

윌리엄스 감독은 "원정에서 시간이 빠듯하지만 롯데 훈련이 끝나자마자 김선빈을 체크할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김선빈은 1일 바로 엔트리에 합류할 전망이다.

KIA는 올 시즌 롯데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5월 19일 광주 홈경기에서 롯데에 꺾음이 3연승을 기록했던 KIA는 6월 2일 장소를 바꿔 치른 원정 3연전에도 모두 승리를 챙겼다.

6월 23일 시작 원정서 시즌 첫 패를 기록했고, 이후 두 경기는 비로 치르지 못하면서 올 시즌 상대전적은 6승 1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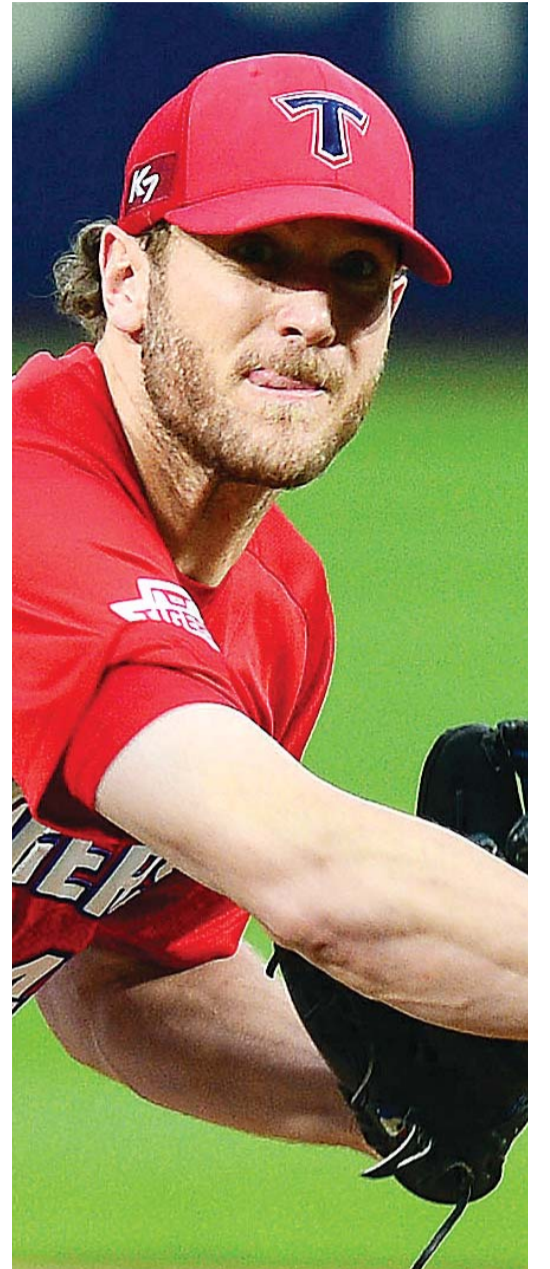
KIA가 넉넉한 휴식을 취한 마운드 힙과 돌아온 김선빈 효과까지 더해 확실한 우위 점하기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브룩스



김선빈



가봉

맷 감독 "응원 기대"... 박준표 "설렌다"

코치진·선수들 소감... KIA 챔피언스필드, 빠르면 다음달 4일 관중 입장

'호랑이 군단'이 마침내 팬들을 만난다.

KIA 타이거즈는 31일 시작되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3연전을 통해서 올 시즌 처음으로 야구 팬들을 마주하게 된다.

지난 26일 KBO리그 관중 입장이 시작됐지만, 홈경기에서의 일정을 소화한 KIA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9일까지 광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져 있었고, 다시 8월 2일까지 2단계 조치가 연장된 탓이다.

팬들 앞에서 '진짜' 경기를 치르게 된 윌리엄스 감독은 30일 "흥분된다.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며 "전체 관중 수용 규모의 10%뿐이지만 팬들이 뜨겁게 응원해줄 것을 알고 있어서 기대된다"고 시작 일정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선수들에게도 기대되는 시간이다.

올 시즌 KIA 불펜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준표는 "좋다. 설렌다"며 웃었다.

"광주에서 해야한다"며 광주 홈팬들과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고영창은 "그동안은 사실 재미없

었다. 연습경기하는 느낌이었다. 빨리 팬들이 와서 같이해주시면 좋겠다"고 팬들과의 만남을 기대했다.

KIA 유니폼 차림으로 처음 팬들 앞에 서게 되는 흥상삼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홍상삼은 "아직 잘 모르겠다. 경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막상 닥쳐야 실감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관중이 10%라서 시즌 막판 순위싸움 끝난 후 경기장 느낌일 것 같다"면서도 "새로운 분위기가 기대된다.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다. 만일 관중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챔피언스필드의 관중 입장은 빠르면 4일 가능할 전망이다.

2일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되면 이에 맞춰 KIA는 4일 시작되는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관중을 맞을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뛰겠소"

윌리엄스, 미 프로풋볼 시즌 불참 선언... 선수 107명 확진 판정

9월 11일 개막하는 미국프로풋볼(NFL)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시즌을 뛰지 않겠다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30일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에 따르면 '디펜딩 챔피언'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러닝백 데이미언 윌리엄스가 이날 팀에 2020시즌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브렛 비치 캔자스시티 단장은 "우리는 데이미언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걸 안다"며 "우리 팀에서 선수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 그가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지난 시즌 각종 부상으로 정규리그에서 11경기밖에 뛰지 못했지만 498야드를 질주하며 팀 내 최고 러싱 야드를 올렸다.

올해 2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의 슈퍼

볼에서도 선발 러닝백으로 출전해 104야드를 달렸고, 4쿼터에는 터치다운 2개를 찍었다.

나흘 전에는 캔자스시티의 오픈십비 라인맨 로렌트 두버나이-타디프가 NFL에서 최초로 시즌 불참을 선언했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두버나이-타디프는 비시즌을 이용해 몬트리올 장기요양 시설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했다.

두버나이-타디프는 "단지 내가 사랑하는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내 지역사회에 잠재적으로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싶지는 않다"며 "만약 위험을 무릎써야 한다면 환자들을 돌보는 데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NFL 선수노조는 이날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NFL 선수가 총 10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사랑의 힘? 박인비, 4언더파 상위권



환상의 짝꿍 30일 제주시 구좌읍 세인트포 골프&리조트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1라운드 경기에서 박인비(KB금융그룹)가 10번홀 티샷을 한 뒤 남편이자 캐디인 남기협 씨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KLPGA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1라운드... 캐디 나선 남편과 '꿀케미'

처음으로 남편을 캐디로 대동하고 경기에 나선 '골프 여제' 박인비(32)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활짝 웃었다.

박인비는 30일 제주도 제주시 세인트포 골프&리조트(파72·6500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1라운드를 마치고 "남편이 생각보다 또박또박 잘 봐주더라"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박인비의 캐디백은 남편인 남기협 씨가 썼다. 2007년부터 호흡을 맞춘 캐디 브래드 비처(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발이 묶여 한국에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인비는 이번 대회부터 다음 달 AIG

여자오픈까지 남편에게 캐디를 맡기로 했다. 박인비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다"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2014년부터 부부의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기에 호흡은 완벽했다.

박인비는 이날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치고 상위권에 올랐다.

10번 홀에서 출발해 13·14번 홀에서 보기를 쳤지만, 곧바로 15·16번 홀 버디로 만회하고, 이후 흐름을 이어가 버디 4개를 추가했다.

지난 2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 우승 이후 5개월 만에 실전 경기

에 나섰다.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결과다.

박인비는 '남편 덕분'이라고 했다.

박인비는 "아이언샷에서 2개 정도 미스 샷이 나왔고, 보기로 이어져 출발이 좋지 않았다. 코치인 남편이 바로 교정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 좋았다. 바로 바로 수정해서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남편이 캐디로 나선 게 처음이라 걱정도 많았다고 박인비는 털어냈다.

그는 "캐디 때문에 신경 쓴 적이 많지는 않은데, 남편이 저보다 더 긴장할까 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웃었다. 그러나 "저도 5개월 만의 출전이어서 긴장했는데, 남편이 옆에 있으니 오히려 긴장감이 안 들더라.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며 "남편이 라이도 잘 봐주고 교정도 바로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찬성언론을 과시했다. /연합뉴스